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5. 10. 16. (목) 8:00	담당기관
		주영한국문화원

영국이 주목한 한국의 차세대 예술가 8인 공개 2025 차세대 작가 공모 선정 결과 발표

- 주영한국문화원, 차세대 한국미술을 이끌 8인 신진 작가 공개
- 영국 미술관의 3인의 심사를 통해 실험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작가 선정

□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선승혜, 이하 ‘문화원’)은 2025년 차세대 작가 전시 공모를 통해 올해 문화원에서 전시할 젊은 한국 작가 총 8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최종 선정자는 노희영, 안상범, 이유민, 전우진, 조재, 조지훈, 주우진, 최수현으로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

○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런던은 실험적 예술의 중심지이자 세계 미술의 기준이 되는 도시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 차세대 예술가들은 현대미술의 중심 런던에서 새로운 창의력으로 한국미술의 정체성과 미래의 한국미술을 함께 보여줄 것입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 예술가들이 다양성과 잠재력을 넓히며, 세계문화에 기여하는 예술 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취지를 강조했다.

□ 올해 공모에는 총 165명의 작가가 지원하였으며, 실험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영국 내 주요 미술기관의 큐레이터들이 본 공모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아이콘 갤러리의 다프네 추(Daphne Chu), 테이트 모던 국제미술부의 알빈 리(Alvin Li), 헤이워드 갤러리의 융마(Yung Ma)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다.

○ 헤이워드 갤러리의 융마 수석 큐레이터는 “올해 선정 작가들은 작품의 형식과 주제 면에서 다양하고 역동적인 신진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다. 이들의 작업이 한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예고하

고 있다.”며 심사 소감을 공유하였다.

○ 아이콘 갤러리의 다프네 추 큐레이터는 “선정위원으로서 섬세하고 다양한 작업을 선보이는 한국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어 뜻 깊었다”며 “각 작가들의 작품에서 보이는 재료의 실험적 연구, 철학과 개념의 깊이 있는 탐구가 인상 깊었다.”고 향후 작가들의 행보에 주목하겠다고 말하였다.

□ 동 공모 선정 작가들은 영국 내 다양한 미술 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부터 꾸준한 활동을 통해 국내외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만의 유쾌한 상상과 통찰을 설치, 조각, 영상, 회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 세계인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 주영한국문화원 차재민 전시 담당자는 “차세대 작가전은 단순히 신진 작가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넘어, 한국미술이 지닌 다양성과 잠재력을 런던 관객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전의 의의를 전달했다.

□ 주영한국문화원 전시실에서 진행될 <2025년 차세대 작가전: 떠오르는 목소리들>은 오는 11월 27일 개막하여 2026년 2월 27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새로운 세대의 정체성과 창의성을 조명할 이번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주영한국문화원 공식 홈페이지 (www.kccuk.org.uk)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25 차세대 작가전> 전시개요

고화질 사진:

https://www.dropbox.com/sc/fo/2x2ok9wutnj6ze065yolx/AJLVaYErt1AS_WsJuqL02Q0?rlkey=v38kk6z59yhn5j9i65znpdq2z&st=xck739wu&d1=0

담당 부서	주영국한국문화원	책임자	원장	선승혜 (+44)020 7004 2600
		담당자	실무관	차재민 (+44)020 7004 2606

□ 전시개요

- (전시제목) 2025 차세대 작가전: 떠오르는 목소리들 (국문), 2025 New Generation Art Exhibition: Emerging Voices (영문)
- (일시/장소) ‘25.11.27.(목) ~ ‘26.2.27.(금) / 주영한국문화원 (런던)
- 개막행사: ‘25.11.27. (목) 18:00-20:00 / 주영한국문화원 로비
- (심사위원) 영국 내 기관에서 활동 중인 큐레이터 3인

다프네 추(Daphne Chu)	알빈 리(Alvin Li)	융 마(Yung Ma)
버밍엄 아이콘 갤러리 큐레이터이자 예술 프로듀서, 작가로, 최근 공예와 현대미술의 관계를 탐구한 전시 Thread the Loom을 기획하였다. 이 전에는 개념미술가 리 밉웨이(Lee Mingwei)의 스튜디오 매니저로 70여 개 국제 전시를 진행하였다.	테이트 모던 국제미술부 큐레이터로, 테이트 모던 현대 커미션 이미지 전시를 비롯해 영국과 아시아 주요 미술기관에서 다수의 전시를 기획하였다. frieze, Artforum, e-flux 등 국제 매체에 글을 기고하며, 베니스비엔날레 예술고문을 역임하였다.	런던 헤이워드 갤러리 수석 큐레이터로, 양혜규 작가의 개인전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시를 기획하였다.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예술감독을 역임하였으며, 파리 퐁피두센터와 홍콩 M+에서 현대미술 및 영상 부문 큐레이터로 활동하였다.

○ (선정작가 및 대표작)

노희영	안상범	이유민	전우진
집단의 역사와 개인의 기억을 교차시켜 세대 간에 전이되는 트라우마와 감정의 흔적을 탐구한다. 일상 속 공간과 사물을 통해 상처와 회복의 양가적 감정을 섬세하게 시각화한다.	자연과 기술의 얽힘을 주제로, 생명과 비생명, 질서와 붕괴의 경계를 영상으로 탐구한다. 기술이 생태 위기를 가속화하는 아이러니를 드러내며 새로운 시간감각을 제시한다.	자본주의와 정보화 사회 속에서 사라짐과 생존의 순환을 다루며, 인간성과 주체성의 붕괴를 성찰한다. 영상과 서사를 통해 기술이 감정과 인성을 대체하는 시대의 불안을 드러낸다.	산업적 재료와 가정용 오브제를 결합해 젠더와 물질의 경계를 흔드는 조각 설치를 선보인다. 단단함과 부드러움, 남성과 여성의 상반된 속성이 긴장 속에 공존한다.
조재	조지훈	주우진	최수현
기술문화의 가속 속에서 인식과 감각이 형성되는 방식을 탐구한다. 회화와 조각, 디지털 이미지를 결합해 감각의 재조정과 사유의 ‘휴식’을 제안한다.	조각을 변화와 적응의 구조로 바라보며, 이동성과 재구성을 통해 불확실한 세계의 생존 방식을 탐색한다. 맥락과 기능의 전환을 통해 사물의 의미와 기억을 새롭게 정의한다	신화와 민속, 샤머니즘 등 비이성적 지식을 토대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상상과 변화를 모색한다. 버려진 재료와 상징적 이미지를 결합해 현대적 신화의 가능성을 열어낸다.	현대 미술 시장의 가치 체계와 작가의 역할을 유머와 퍼포먼스를 통해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예술노동, 거래, 소유의 문제를 다루며 예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질문한다.